신년 진단 언택트 대담

코로나 & 기후위기 & 4차산업

초연결사회 대비한 패러다임 전환 시급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 보세요

현대불교신문이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신년 한해 전망과 과제를 살피는 언택트 대담을 진행했다. 구랍 22일 이뤄진 언택트 대담의 진행은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이 맡았으며, 대담자로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민정희 국제기후종교네트워크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언택트 대담은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인 ' 스튜디오 공' 에서도 만날 수 있다.
(https://youtu.be/m0E5VVPqOdk)

정리=송지희 기자 · 영상편집=송현석 PD



현대불교신문사는 구랍 22일 2021년 한해를 전망하는 '신년 진단 언택트 대담' 을 진행했다. 사진은 대담을 진행하는 김주일 본지 편집국장. 사진=박재완 기자

포스트코로나&불교

김주일 2020년 세계를 멈추게 만든 코로나 사태가 2021년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신축년 불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하시는지요.

정념 스님: 올 상반기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공급되더라도, 이미 우리가 마주한 언택트, 비대면 문화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이 빨라지면서 새로운 소통 형태에 기반한 일상 문화들은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과학발달로 인한 문명 전환의 시대에서, 과거의 세계관에 매몰된 종교는 더 이상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지도력과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흐름 속에서 종교가 새로운 아젠다와 세계관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성 고갈의 시대, 세상은 더 큰 영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성 종교들이 과거의 문화나 양식으로는 그 요구에 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불교적 가치를 토대로 힐링, 치유, 명상 등 새롭게 요구되는 가치로의 전환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석길암: 지난해 불교계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산문폐쇄 등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미 불자들의 종교행위와 신행생활에서 대면형태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조했던 현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사태는 우리 불교계에 더욱 심각한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올 상반기까지 지속된다면 불교계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최대한 빨리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위축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살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교계가 더 바짝 긴장하고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민정희: 코로나 사태 이후 사찰 재정난과 양극화 편차가 심화된 상황이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지요. 신도들이 절에 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전국 사찰들에 재정적인 압박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비대면 문화가 제시되고 있는데, 정작 신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신행활동을 대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의문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불교신자 대부분은 고연령층입니다. 비대면 신행활동 혹은 법회, 교육에 접근하기 쉽지 않죠. 기본적으로 비대면 문화 접근성 실태에 대한 현황을 토대로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지만, 관련 연구나 조사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불교계는 여전히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막연하게 대응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죠. 보다 체계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외면받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김주일 관람료 수입에 의존했던 전통사찰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찰들은 재정 수입 구조 다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런지요.

정념 스님: 재정문제는 불교 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 주어진 화두입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대면방식에 토대를 둔 보시금과 문화재관람료 등으로 예산을 확충하고 교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찻집이나 불교용품점, 영농법인 등 사회와 함께하는 가운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대안을 가지고 예산 확보의 토대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죠. 전통적인 대면방식이 비대면방식으로 확대되면서 이제는 온라인 · 오프라인 양측을 모두 활용한 예산 확보 방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석길암: 재정수입 다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찰경영이지만, 사실 사찰 재정문제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찰은 국가가 아닌 불교의 사유재산입니다. 불교의 사유재산이 문화경관 혹은 자연경관으로 국가법에 의해 지정돼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찰과 사찰 주변환경은 불교계가 오랜 세월 지켜온 자산인만큼, 정부 혹은 우리사회가 이에 대해 정당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더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죠. 국립공원이나 자연공원 내 포함된 사찰이 많은데,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찰을 제약하는 규정도 문제입니다. 전통사찰은 불교공동체 또는 신행공동체가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온 공동체의 공간임에도 자연보존 위주로 묶어두고 있어요. 사찰이 묶여야 될 카테고리는 문화경관보존 카테고리이며, 전통사찰을 둘러싼 생태환경의 변화까지 포함한 카테고리로 변경되야 합니다. 변화된 제도 속에서 국민들이 함께 공감해야 사찰이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민정희: 석길암 교수님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국민 정서 및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또한 국가나 정부로부터 공적 재원을 지원받는 쪽으로만 치우친다면, 그에 따르는 자율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사찰마다 보시금의 차이가 있고 재정의 유무가 다른 상황임을 살펴볼 때, 사찰재정의 재분배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계종에 속한 사찰은 하나의 공동체이며, 따라서 재정이 많은 사찰은 재정이 적은 사찰을 지원하는 형태로 종단이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김주일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과 인력이 취약한 소형 사찰들과 대형 사찰들 간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지 않을 런지요.

석길암: 코로나 사태가 꼭 대형사찰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불교계가 공동체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소형사찰이든 대형사찰이든 가장 큰 문제는, 불교계에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종단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서 모든 사찰, 그리고 단체들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대응이 불교계 전체의 미래를 갈음할 것으로 봅니다.

정념 스님: 공동체 시스템에 근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단순하게 돌본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조계종의 경우 교구본사라는 행정관리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관리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은 지역단위 거점사찰을 중심으로 적절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찰 하나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현 불교계 상황에서 쉽지 않아요. 아무리 큰 사찰이 예산 많다고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그런 역량을 갖춘 큰 사찰이 몇 개 되지 않는 것이 불교계 현실입니다. 때문에 교구본사가 잘 살펴서 최대한 보존 · 유지 · 계승될 수 있는 곳들은 별도 관리하면서 관리 효율과 예산을 살펴 뒷받침해야 합니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찰은 지역사회와 정부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주일 코로나19가 불교에 던진 화두는 무엇이며 또 불교계는 한국사회, 그리고 지친 국민들을 위해 어떤 가치들을 제시해야 할까요?

A15면에 계속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화계사

辛丑年 밝아오는 새해에도 각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화계사 사부대중은 서원합니다.

조 실 송원 설정
회 주 성광
주 지 수암
국제선원 정진대중

사부대중일동

일요가족법회(거사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청년회		토요일	오후 4시
나한대학생법회		일요일	오후 1시
학생회		일요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회		일요일	오전10시
일요참선법회(수선회)		일요일	오후 1시30분~4시
철야정진(선우회)		토요일	오후 9시~새벽3시
불교대학		화~일요일	오후1시
열린시민선방		월~금요일	오전9시~9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 (수유동)
Tel. 02)902-2663 Fax. 02)990-1885 www.hwagyesa.org